

효성 등 21개사 '빛가람 에너지 벨리'에 738억원 투자

한전·광주시·전남도와 투자 및 금융지원 협약 신재생에너지·전력ICT 등 업종 다양... 시너지 '기대' 총 32개사 유치... 1168억원 투자·1341명 고용창출

국내 대표 에너지기업인 (주)효성 등 21개 기업이 '빛가람 에너지 벨리'에 투자한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벨리 조성사업엔 올해 상반기에만 32개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500개 기업 유치 목표도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한국전력은 29일 한전 본사에서 한전KDN과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 등 자치단체, 효성과 전력기자재 제조업체인 옴니시스템(주) 등 21개사와 '빛가람 에너지 벨리 기업투자 협약'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1개사의 총 투자 규모는 738억원으로, 1000여 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된다.

(주)효성은 ESS(에너지 저장장치) 개

■ 빛가람 에너지벨리 투자기업

| 광주광역시 | 빛가람 혁신도시 | 나주 혁신산단 |
|------------|--------------|------------|
| (주)효성 | (주)넥스셀 | 신한정밀(주) |
| 덴스틴파워(주) | (주)그리드텍 | 대원전기(주) |
| 문암이엔알(주) | (주)더솔루션스 | (주)솔라라이트 |
| (주)백광전기 | (주)동천기공 | (주)알티에스에너지 |
| 씨아이에스(주) | (주)아이디알서비스 | (주)에스티이씨 |
| 인셀(주) | (주)오픈다임 | 옴니시스템(주) |
| 전우실업(주) | (주)테크프로 | 평산전력기술(주) |
| 투자규모: 239억 | 투자규모: 230.7억 | 투자규모: 269억 |
| 고용창출: 242명 | 고용창출: 280명 | 고용창출: 417명 |

〈자료:한전〉



29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빛가람 에너지 벨리 기업투자 협약 및 금융지원 협약식'에서 한전과 한전 KDN, 광주시, (주)효성 등 21개 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약을 맺었다.

전력 IT 솔루션 개발을 위해 80억원을 투자하는(주)넥스셀 등 7개사는 나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투자한다. 또 수도권에서 본사·공장을 옮기기로 한 신한정밀(주) 등 7개사는 나주 혁신산업단지 입주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신재생에너지·전력 ICT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에너지

벨리에 입주하기로 해 기업 간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효성이 에너지 신산업 분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 벨리 조성사업에 동참하기로 한 점도 한전 안팎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전은 또 이날 중소기업은행과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0억원을 조성해 그 중 1000억원을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1000억원은 펀드를 구성해 투자유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한전 에너지벨리 투자기업은 모두 32개사로 늘어났으며 총 투자액은 1168억원, 총 고용창출 규모는 1341명에 이를 전망이다. 한전과 지자체는 유치기업들이 세계적인 우량 중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기로 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광주와 전남의 공동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살려 광주, 전남, 나주에 각 7개 기업을 유치한 것의 의의가 있다"며 "에너지 벨리 조성사업이 본 계획에 올라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시 "문화전당 인력·직제 축소 반대"

"정무직 책임자·인력 80여명 적당" 정부에 공문

광주시는 29일 아시아문화전당 직제와 관련한 정부의 임명예고에 대해, 전당에 걸맞은 인원과 직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 의견서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규모 축소는 조성사업의 부처 간 업무협조, 정부와 광주시간 정책협약 및 조정, 문화전당 지원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진단은 문화전당운영 등 4개 사

업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 명시된 법적 기구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문체부 내에 최소 3개과(문화도시정책과, 문화도시개발과, 문화전당지원과)를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문화전당 추진단은 문체부 직속으로 4개과로 편성돼 있다.

광주시는 문화전당 책임자는 위상 강화를 위해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정부직(차관급)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전당 인력을 애초 문체부 협의안인 80여명이 적정하다며, 32명으로 규정

한 것은 전당 운영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민예총,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등 시민단체들 문화전당의 규모 축소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또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광주시의회 등도 기자회견을 하거나 성명을 내는 등 정부의 직제 축소 움직임에 반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임명예고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인력 32명을 전당 운영 인력으로 정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망월묘원, 광주 근교 5개 시·군 주민에 개방

광주 근교 5개 시군 지역 주민들도 망월묘원 묘지인 망월묘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29일 "올 10월부터 전남 나주와 함평, 담양, 장성, 화순 등 5개 시·군

주민에게 망월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남 등 다른 지역 주민들은 망월묘원묘지 내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은 이용할 수 있었으나 묘지공원은 불

가능했다. 광주시가 근교 주민에게 묘지를 개방하기로 한 것은 국내 10억원을 지원받아 1500여기를 안치할 수 있는 가족묘 등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분양가는 8기 가족묘 기준으로 300만 원 안팎으로 예상되며 가격은 광주시민과 같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F1 위약금' 협상 합의 불발

전남도, 액수 제시...FOM "최대주주 의견 구한 뒤 결정"

F1 대회조직위원회와 F1 대회 주관사인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가 올해 F1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데 대해 '위약금 2차 협상'을 최근 영국에서 가졌다. 지난 2월 말 영국에서의 1차 협상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이나 위약금 액수와 관련한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박원화 F1 대회 조직위 정책고문과 안병욱 F1 대회 조직위 기획부장 등 협상팀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FOM 본사가 있는 영국을 방문해 FOM 관계자들을 만났다.

협상팀은 FOM 관계자에게 구체적인 위약금 액수를 제시했고, FOM 관계자들은 FOM의 최대주주인 'CVC' 의견을 구한 뒤 전남도에 전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팀은 영국 방문 기간에 버니 에클스턴 FOM 회장이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F1 대회에 참석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FOM에 (대회 개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 액수를 제시했으나 FOM 측에서 답변이 없어 이

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FOM을 방문한 것"이라며 "최대주주인 CVC 최고의결 기구에 관련 내용을 상정한 뒤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FOM은 "F1 대회 조직위가 지난해 11월까지 2015 대회 개최권료를 지급하기 위한 계좌(신용장)를 외국(통상 영국) 은행에 개설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계약위반"이라며 사실상 위약금을 물어내라고 주장한 바 있다.

FOM이 요구한 위약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협약에 따라 계약을 위반하면 '2년치 개최권료'를 위약금으로 물게 돼 있다. 1년치 개최권료는 4300만 달러다.

F1 대회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개최됐고 2014년부터 열리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2016년 대회 일정 초안이 오는 9월 작성되고, 계약상 마지막인 내년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월까지 신용장을 개설해야 하는 만큼 조만간 FOM측의 대응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맞벌이부부 가사노동 아내가 남편의 4.4배

통계청 '2014년 생활시간조사'

20세 이상 한국인이 먹고 자는 데 쓰는 시간이 5년 전보다 20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시간은 5분 줄었다. 주 5일제 도입으로 생활에 좀 더 여유가 생겼는데도 국민의 80% 이상은 여전히 피곤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남성이 가사노동에 쓰는 시간은 하루 평균 47분으로 지난 10년간 11분 증가하는데 그쳤다.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208분으로 남성의 4.4배였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0세 이상 성인이 일한 시간은 하루평균 4시간 24분이었으나, 5년 전보다 5분 줄었다. 남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4시간 45분으로 7분 감소했고, 여자는 2시간 44분으로 4분 줄었다.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 시간은 남자가 41분, 여자는 3시간 13분이었다. 남편만 취업한 외벌이 가구 남편이 맞벌이 가구 남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투입하고 있었다. 이 경우 남편은 46분, 여자는 6시간 가사노동을 했다. /연합뉴스

의료광고 심의필 제 141205-중-65758호

밝은광주안과 의원

진료내용

라식 LASIK

라섹 LASEK

ICL 안내렌즈삽입술

SMILE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수술

SMILE 수술이란?
라식수술시 만들게 되는 각막절편을 만들지 않고, 2mm의 최소절개를 통해 각막을 제거하는 신개념 수술입니다. 라식수술로 생길 수 있는 안구건조증을 최소화하고 각막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시력교정수술입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 빌딩

운암동 광안
상우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원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